

Value No. 1 Only 305.5

신개념 5.5톤급 소형 굴삭기, CAT 305.5
 앞선 기술, 뛰어난 내구성으로
 캐터필라 대형 굴삭기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작지만 큰 기술, CAT 305.5
 가치혁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CAT® 305.5

정격출력 : 54.3 hp @2,100 rpm / 운전중량 : 5,480 kg
 토출량 : 2×54.6 L / 토출압 (작업/선회) : 250 / 210 kg/cm²
 버킷용량 : 0.18m³ / 연료탱크 : 135 L



2005 | SUMMER |

헤인

www.haein.com



주식회사 헤인
 www.haein.com

본사: (02)3498-4500 또는 전국 각 지점 / 고객센터 080-022-5775
 천안고객지원센터 041) 559-1500 평택창고 031)667-2066/9 양산창고 055)385-9668
 서울영업본부 02)3498-4541/8 경기북부영업소 031)826-0966/8 영동포영업소 02)2636-2891/3 남부영업소 031)667-2062/3 부산영업본부
 051)517-7060/935-0500 전주영업소 055)852-8811 포항영업소 054)262-7551/2 인천지점 032)761-0564/6 동해지점 033)522-5211
 광주지점 062)945-5811/5 제천지점 043)643-3307/644-3307 전주지점 063)245-1777/8 대구지점 053)521-8072/5 대전지점 042)531-6518/9

귀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

그리고 입으로 무엇을 말할 것인가

입 ① 두 입술 부분. ② 꼭 다문 입. ③ '말재간'이나 '말버릇'을 이르는 말. ④ '적구'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⑤ (의존명사적 용법)한 번에 먹을 만한 음식물의 분량을 세는 단위. 그리고... 어귀, 출입문 등등등

말이 되고

사랑이 되고

달콤함이 되며

때로 힘이자 독이 되는,

하루 어느 한 순간도

그 존재감을 떨칠 수 없는 입의 同床異夢.

03 프롤로그 | **04** 테마 인터뷰 | **08** 믿거나 말거나 구전 야화
10 해인 동서남북 | **14** 高客古客 | **16** Here is Haein | **18** 업계는 지금 | **22** 최고의 장비
24 해인 뉴스 | **26** 독자 나눔터 | **24** 생활의 발견

Special Theme **Human Body ; Lips**

표지 설명 : '2005 한국건설기계전'에 참가한 해인 전시장

2005년 여름호(통권 248호) | 2005년 6월 27일 발행 | 1993년 10월 20일 등록(등록번호 바-2006호) | 발행 겸 편집인 원경희 | 발행처 주식회사 해인(www.haein.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92-6 해인빌딩(02-3498-4500) | 기획 및 디자인 편집디자인실 외곽(02-3447-7601) | 인쇄 대로인쇄(02-2278-0773)

감정을 표현하고, 말하고, 먹고, 즐기는 모든 것들을 담은 입. 우리 생활 곳곳에 두루 묻혀 뿔뿔이 뗄 수 없는 입의 존재감을 삶 속에서 찾아본다. 4명의 인터뷰를 통해 본 입에 대한 4가지 색깔, 4가지 이야기. 글과 사진: PAS(help@i-pas.com)

순수한 마음 입맞춤 | 서울 삼성동 유찬우

동희는 동생이에요. 귀여워요. 말도 안 듣고 말썽부리고 그럴 땐 미운데 그래도 내 말 잘 듣고 그래요. 동희랑 놀면 재미있어요. 매일 놀아요. 오늘도 동희랑 별레를 하나 찾았어요. 동희가 무지 좋아했어요. 신기하대요. 아이스크림도 같이 먹고, 달리기도 하고. 이따가 동물원에도 갈 거예요. 동희가 좋아요. 동희는 뽀뽀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래도 해줘야지.

입맞춤



味



늘 새로운 도전의 시작 | 푸드스타일리스트 구지혜

예전에는 먹을 것 자체에 대한 고민만 있었다고 할까요? 말 그대로 목구멍이 포도청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간단한 음료수 하나를 먹더라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왜 먹느냐 하는 것까지 생각해요. 음식에 대한 욕하원칙이 생겼다고 봐야겠죠. 어려울 때 아무거나 먹다가 맛을 조금씩 알아가던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맛을 느끼기 전에 음식의 모양을 많이 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으로 돌아온 것도 같아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 말은 아마 푸드스타일리스트에게 기본이 되는 말일 테니까요.

우리의 입은 음식에 들어간 재료들의 맛을 알아차리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만드는 사람의 정성을 알아차린다는 점에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전에 같은 재료로 똑같은 요리를 만든 적이 있어요. 한번은 여유를 갖고 정성을 들여 만들었고, 한번은 빠듯한 시간에 급하게 만드느라 신경을 덜 썼는데 제가 봐도 그 맛의 차이를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제게 입은 늘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요리가 나오면 늘 먼저 달려가 맛을 보고 음식에 대해 연구를 하죠. 맛있는 것을 먹을 땐 행복하지만 일이라 그런지 입맛에 맞지 않을 땐 말 그대로 입에게 조금 미안해요.



입술

얼굴의 꽃 |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태희

여자치고 꾸미는 것에 관심 없는 여자가 있을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남보다 조금 더 관심이 많아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란 직업을 선택하게 된 거겠죠. 그저 거울 앞에서 화장이나 하겠지 생각들 하시지만 모델 콘테스트를 총괄하거나 대학의 졸업전시회를 주관하고, 패션쇼, 카니발, 페스티벌 진행 및 방송이나 잡지 촬영 등의 분야에서도 활약합니다. 그만큼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하죠. 그 모든 것의 연결 고리는 바로 메이크업이에요. 모든 메이크업은 얼굴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입술 메이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입에 대한 주목도가 크겠죠?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뉴스 진행자처럼 보도를 하는 분들은 약간 퍼펙트한 분위기의 메이크업을 해주는 것이 좋고, 발랄한 분위기의 리포터 분위기나 시원한 느낌을 줄 때는 글로시한 느낌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드라마나 광고에서도 그렇죠.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그냥 입술만 바르고 나간다고요. 그만큼 입술이 메이크업의 시 작이고 중요한 포인트인 것은 사실입니다. 입술 색이 순간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면 입술 모양은 인상의 변화를 많이 가져다 줍니다. 얼굴 전체의 균형에 맞춰봤을 때 너무 도톰하거나 너무 얇지 않게끔 립 라인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아요. 요즘은 한 듯 안 한 듯한 아주 투명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많이 선호합니다. 저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오히려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채 다녀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도 전 자연스러운 저의 입술이 가장 좋거든요.



말

아끼고 아껴야 할 소중한 것 | 일동제약 남부지점 박국현



특별한 경력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그게 영업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얼떨결에 뛰어들었고 10년, 20년 넘은 대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2년 정도 영업 전선에서 뛰어보니 사람에게 다가가는 법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는 법, 그리고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에 대해서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특별히 뭐가 어렵다고 보다는 장사 중에도 사람 상대하는 장사가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제 일도 늘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종종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초창기에 한 업체에 들어가 별 생각 없이 가볍게 나섰던 이야기가 와전되어 한 번도 보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했을 땐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고, 그냥 때려 칠 생각도 했었죠. 돌아보면 그게 다 경험이 되었어요.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상품에 대해 정말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해도 해도 부족한 것 같고, 어제 방문한 업체에서 연락이 없으면 당장 달려가서 또 주절주절 말을 늘어놨죠. 그때는 저녁이 되면 입 주위가 아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 요령이 생기더군요. 결코 많은 말이 사람을 설득하지 않는다는 것. 그 사람을 알아야 볼펜 한 자루도 팔 수 있다는 것.

그 후로 처음 방문 때는 절대 일 얘기를 안 해요. 아니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저 역시 그 사람에 대해 알 때까지 결코 일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아가기 전에 해야 할 말들을 줄이고 줄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그 후로는 입이 아린 적이 없어요. 군인에게 총이 생명이듯 영업 사원에게는 입이 생명인데 아끼고 아껴서 오랫동안 잘 써야죠.



입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신체 기관 중 보다 능동적인 의미를 지닌 기관이다. 맛을 보는 것, 생각을 이야기 하는 것 등은 살아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때론 입을 열어 진실을 밝히기도 하지만, 때론 입을 닫아 진실을 영원히 지키기도 한다. 입은 우리도 모르게 언제부터인가 야누스의 모습을 띠고 있다.



우리 몸의 유일한 야누스, 입

■ 먹거나 말하거나

어떤 면에서 눈과 귀와 코는 받아들이는 기능만을 전담하는 신체 기관이지만 유독 입은 생존을 위해 음식을 받아들이는 소화 기능 외에도 인간만의 독특한 의사소통 수단인 '말'을 표현하는 기능을 갖춘 기관이기도 하다.

미각을 담당하는 혀의 표면에는 돌기 형태의 '미뢰'라는 것이 있다. 미뢰가 맛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기도 한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과 청력은 떨어지지만 유독 미각만큼은 고령의 나이에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제 기능을 유지한다. 이는 보지 않고, 듣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먹는 것만큼 생존과 직결된다는 면에서 다시금 인체의 신비를 돌아보게 만든다.

소리통 구실을 하는 입 속에서 혀와 입술이 약 140여 가지의 소리를 만들어 낸다.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 인간이 구사하는 3천여 종의 언어는 모두 혀와 입술의 합작품이라고 하겠다. 살기 위해 먹어야 하고, 함께 살기 위해 말을 나누어야 하는 우리에게 입은 산다는 것 그 자체이기도 하다.

■ 입 속의 검은 잎

우리의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한때는 말을 하고 싶어도 속 시원히 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 누구나 속절없이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을, 그저 시절 탓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겠지만 '내 입 속에 악착같이 매달린 검은 잎이 나는 두렵다'라고 하며 어느 시인은 심야극장 한편에서 쓸쓸한 죽음을 기다렸다. 학교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말을 뱉김으로써 갈 곳이 없어진 시인 자신의 모습이 입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모습이 자꾸만 상상되는 시구다.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더더욱 그렇다. 옛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늘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슬픈 연인들이 등장한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 훨씬 이전부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그렇게들 말을 아꼈다. '쌀은 쏘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등등 선인들이 남겼던 말의 위력들을 두려워해서였을까? 하지만 결국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있다고 고기의 참맛을 알려면 끝만 핥을 것이 아니라 자꾸 씹어야 하듯이, 하고 싶은 말이나 해야 할 말은 시원히 다 해버려야 좋은 법이 아닐까 한다.

■ 경계해야 할 입의 변주

옳거나 혹은 옳지 않거나 일단 말을 하기에 앞서서 이를 통제하는 기관이 바로 입이다. 채근담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口乃心之門 守口不密 洩盡真機(구내심 지문 수구불밀 설진진기)' - 입은 마음의 문이다. 그러므로 입을 무겁게 하지 않으면 참된 모든 기운이 모두 새어나가고 말 것이다. 모든 문제는 늘 세 치 혀에서 출발하기 마련이다. 세 치만 9cm 정도의 아주 짧은 길이지만 그로 인해 나라의 흥망이 결정되기도 하고 십년지기 우정에 금이 가기도 한다. 물론 천 냥 빚을 세 치 혀가 갚아주기도 하고, 거짓말을 잘 하는 것이 논 닷 마지기보다 좋다는 해학 섞인 말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말은 늘 경계해야 할 물건임에 틀림없다. 공자 역시 다음과 같은 말로서 입을 통한 말함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웠다. '古者言之不出 恥躬之不逮也(고자언지불출 치궁지불체야)' - 옛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내지 않는 것은, 몸소 실천함이 곧 미치지 못할 것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보지 않은 사실을 말하거나 지킴이 못할 약속은 입 밖에 내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입은 어떤 사람에게 먹고 살기 위한 소중한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망치는 원흉이 되기도 한다. 또한 서 말의 구슬을 꿰듯 꼭 입 밖으로 내어야 하는 말이 있는 반면, 입을 꼭 닫아서 단속을 해야 하는 말이 있다. 야누스의 모습 그대로다. 눈은 보이는 대로 보고, 귀는 들리는 대로 듣지만 입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말한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열린 꿈을 향한 곳, 부산

부산영업본부, 삼원종합중기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거대한 물류와 사람이 오가는 곳이다. 주변에 대규모의 공단이 위치한 중소도시들이 포진해 있어 그 규모는 더욱 거대하다. 한편, 바다에 접해있어 시원스런 해안의 절경은 도시에 특색을 더한다. 첨단 산업이 발전해 있는가 하면 천혜의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부산의 장점이다.



도시와 자연의 조화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부산은 1876년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한 이래 우리나라의 수출입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태평양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부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적 선박과 물류에도 중요한 곳이다. 세계 100여 개국 500여 항만과 교류하며 연간 13,000척의 외국적 선박이 기항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유수의 6개 항만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또한, 물류 이동의 편의성을 따라 공단 등의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언제나 활기가 가득한 지역이기도 하다.

기계 소리와 첨단 지식이 오가는 한편, 부산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관광도시이기도 하다. 해안을 따라 늘어진 항구와 그 사이 백사장은 사시사철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요소다. 바다뿐만 아니라 도시를 굽이굽이 감싸 안고 있는 산들도 또 다른 볼거리다. 그 중에서도 호국의 명산으로 불리는 금정산은 부산의 자랑거리다.

넓은 시장, 기회의 땅

부산영업본부는 지역의 규모를 반영하듯 상당히 크다. 부산을 굽어보는 금정산 자락에 위치한 부산영업본부에는 총 37명이 이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진주, 포항 영업소까지 이 곳에 속해 있어 규모만으로는 서울도 부럽지 않다.

이렇게 규모가 큰 것은 그만큼 시장이 크다는 얘기. 최근에는 신항만공사와 신고리원전건설사업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크고 작은 현장들 외에도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이 모두 해인의 잠재고객인 셈이다. 큰 사업들이 추진되었던 2003년과 2004년은 전국에서 영업 실적 1위를 달성해 그 위용을 떨치기도 했다. 부산영업본부는 캐터필라 팀 외에도 잉가솔랜드와 산업장비, 엔진, 부속품 등을 비롯해 A/S팀까지 갖추고 있어 다양한 제품군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장이 크고 고객군이 다양한 부산은 영업하는 사



상단 삼원종합중기의 심현대 사장

하단 녹산산업단지 공사 현장에서 작업중인 캐터필라 325CL 굴삭기





람에게는 기획의 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 남다른 노력과 경쟁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부산영업본부 캐터필라 장비판매담당 전병준 차장은 부산 생활 2년 반 동안 얻은 것이 참 많았다고 말한다. 넓게 시장을 바라보는 눈도 키웠으며 새로운 고객들도 많이 만났다. 그러나 한편 국산 장비와 지역색에 어려움도 상당했다고 털어놓았다. ‘부산 사나이’의 호탕함도 있지만 물건 구매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까다롭다는 것이 전 차장의 전언이다.

부산 사나이의 화통한 선택

부산 인근의 녹산산업단지 공사 현장에서 부산영업본부의 고객 ‘삼원종합중기’의 심현대 사장을 만났다. 중장비 지입회사인 ‘삼원종합중기’는 100여 대의 장비가 속해 있는 꽤 큰 규모의 회사다.

심 사장이 중장비 관련 일을 시작한 것은 1994년부터이지만 헤인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가 A/S 문제로 불편이 있자 불신이 생겼고 이를 기회로 헤인의 캐터필라 325CL 굴삭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미 캐터필라에 대한 우수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바라 선택에 그다지 고민은 없었다. 가격은 다른 국산 제품들에 비해 고가이기기는 하지만 고장으로 인한 작업 손실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익일 것이란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처음 캐터필라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품질의 우수성을 몸소 경험한 이후에는 캐터필라를 더욱 선호하게 되었다. 하나둘 캐터필라를 사용하는 차주들이 늘어 지금은 총 9대를 보유하고 있다.

영업은 믿음으로 하는 것

심 사장은 캐터필라의 장점으로 단연 잔고장이 없는

품질의 우수함과 빠르고 확실한 A/S를 꼽았다.

“현장에서 A/S는 생산성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굴삭기 한 대가 고장이 나 멈춰버릴 경우에는 굴삭기 한 대뿐만 아니라 그에 딸린 트럭 수십 대가 같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낮은 고장률과 신속한 A/S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입회사와 함께 건설업을 시작한 지금 캐터필라의 효율성은 더욱 높다. 높은 가격 때문에 수요가 적은 임대보다는 직접 운영하는 현장에서 캐터필라의 빛을 발한다. 앞으로 건설업을 더욱 확장시킬 계획이라 캐터필라에 거는 기대도 높다. 한편, 애정이 담긴 충고도 잊지 않는다. 타 회사의 제품에 비해 소모품 교체 비용이 높다는 것이다. 이 문제만 절충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한다.

심 사장이 헤인과의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비의 우수성은 물론이고 전 차장과의 인간적인 유대감 때문이기도 하다. 심 사장은 캐터필라와 인연의 고리를 엮어준 전 차장을 굳은 신뢰로 대하고 있으며 2년 이상 지난 지금, 전 차장 역시 고객 이상으로 친분이 깊어졌다. 나이도 비슷한 두 사람은 이제 일 외에도 자주 만나고 술 한잔에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되었다. 고객과 영업 사원의 관계를 넘어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두 사람은 인간관계의 인연과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전 차장의 말처럼 넓은 시장을 토대로 하고 있는 부산은 기획의 땅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성공의 열매로 거두기 위해 부산영업본부는 언제나 부지런하다.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부산의 바다처럼 진취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부산영업본부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글. 강성애, 사진. 이승혁

Tip 부산에 가면

나라를 지켜주는 산, 금정산



부산의 불거리는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륙 쪽으로 위치해 부산을 굽어보고 있는 금정산은 역사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호국의 산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호국사찰(범어사)과 국내최대의 금정산성이 축성되어 있다.

산세는 그리 크지 않으나 곳곳에 웅장한 숲이 우거져 있으며 골마다 맑은 물이 항상 샘솟고 화강암의 풍화가 격렬하여 기암절벽이 절묘하여 부산이 자랑하는 명산이 되었다.

또한 금정산에는 악수터가 14군데나 있어 등산객의 목을 축여 주고 일부 구민의 식수로 쓰이고 있으며 2,300여 종류의 나무와 날짐승, 길짐승을 포함 600여 마리의 동물이 서식하는 동, 식물의 낙원이자 동래온천, 금강공원, 범어사, 국청사, 금정산성과 산성마을 등 명소를 두루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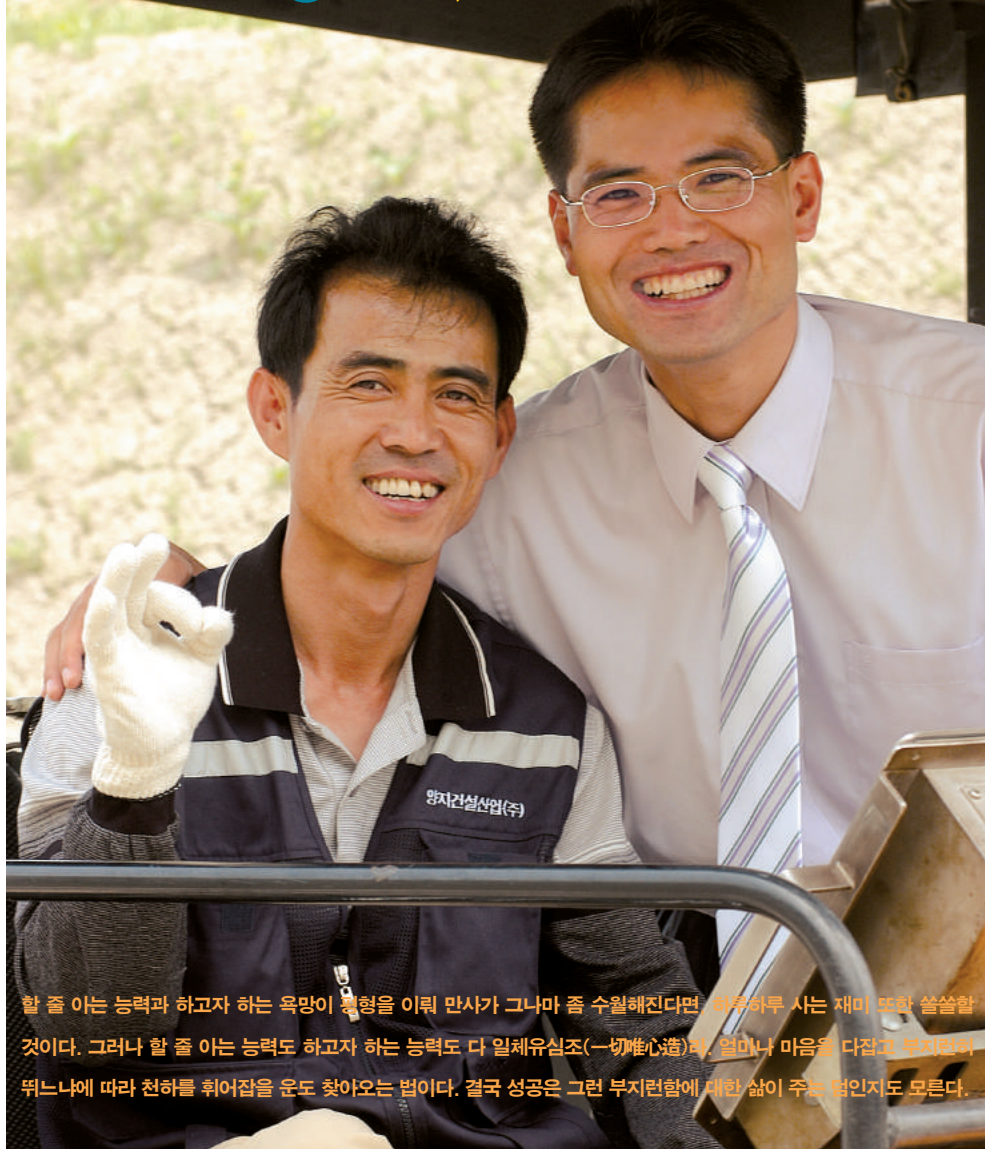
색다른 여름철 별미, 밀면



이북의 냉면이 부산으로 내려와 새롭게 자리잡은 것이 있으니 이것이 부산의 별미인 ‘밀면’이다. 쫄깃한 면발과 살얼음이 살짝 언 육수, 매콤새콤한 양념장이 더해지면 밀면의 참맛이 나온다. 밀가루와 전분, 옥수수가루를 섞어 뽑아내는 면발은 냉면보다는 부드러운데도 쫄깃한 씹는 맛이 살아있다. 한약재를 첨가해 우려낸다는 육수는 첫맛은 씹쌀하지만 깊은 맛이 있어 한번 맛본 사람은 자꾸 찾게 된다고 한다. 가격도 3,500~4,000원 선으로 저렴해 입맛 떨어지는 여름철 가볍게 찾을 수 있다.

간간한 마음을 녹인 완벽한 품질

高 객古 객 천하건설



할 줄 아는 능력과 하고자 하는 욕망이 불협을 이뤘다 만사가 그나마 좀 수월해진다면, 하루하루 사는 재미 또한 쏠쏠할 것이다. 그러나 할 줄 아는 능력도 하고자 하는 능력도 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얼마나 마음을 다잡고 부지런히 뛰느냐에 따라 천하를 휘어잡을 운도 찾아오는 법이다. 결국 성공은 그런 부지런함에 대한 삶이 주는 업인지도 모른다.

용인천하 Titan천하

월급쟁이에서 사장으로 성공적인 변신을 한 손천주 사장.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의 천하건설을 설립 할 당시 그가 가진 유일한 자산은 성실함과 신뢰였다. '관계'의 가치 평가 기준을 자신이 살아온 잣대로 재는 게 인지상정인 만큼 그에게 해인은 말과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일 것이다.

도로 포장을 중심으로 상하수도 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해온 천하건설은 남들 다 허리가 휜다는 불황 속에서도 내년까지 뻥뻥하게 수주를 확보하고 있는 알찬 기업이다. 현재 진행 중인 용인 동백지구와 일산 풍동지구의 도로·택지 공사만 해도 단일 공정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니 이 회사의 가치는 그 이름 만큼 높고도 크다.

오늘 우리가 달리고 있는 용인지역 대부분의 도로가 천하건설의 작품이며, 설립 당시부터 해인의 Titan 시리즈를 쓰고 있다고 하니, 용인 천하의 모든 도로는 Titan의 숨소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결 같은 품질, 한결 같은 서비스

장비를 직접 운전했던 손 사장만 만큼 장비에 대해선 냉정하고 철저하다. 그런 그가 15년 넘게 Titan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오로지 '품질'과 철저한 A/S.

모 건설회사의 관리부장으로 있을 때부터 그의 손때가 탄 Titan은 무려 9대. 거기에 지금 천하건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Titan 323과 Titan 326을 합하면 10대가 넘는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입김을 타고 알음알음 소개해 준 것만도 15대에 이른다 하니,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간간한 감각을 설득한 Titan의 품질은 말할 필요 없으리라.

유압식 Titan과 15년 넘게 써왔던 탓에 웬만한 정비에는 해인 손을 빌지 않고도 척척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손 사장은 Titan 운영에 관련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카탈로그 하나 쓱 넣어주고 찾아오지도 않는 타 업체와는 달리, 매번 직접 찾아와 설명해 주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이은구 과장의 밀착 서비스도 해인에 대한 믿음이 가는 커다란 요소라고 한다.

Titan이 처음 한국에 들어와 그 이름을 날린 건, 1993년 천하건설이 시공한 경부고속도로 력키구간(지금의 LG건설)에서이다. 평탄성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천하건설은 시공업체 중 1등을 기록하며, Titan이 한국에 안착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그러나 꾸준한 성능 개발과 관리가 없었다면, 그날의 성공은 물거품이 되었으리라는 게 그의 평가이다. 신뢰와 성실 하나만으로 6년 만에 부채 하나 없는 탄탄한 회사로 변신시킨 손천주 사장. 일일이 공정을 행기며 여전히 현장을 누

비는 그의 간간한 완벽주의가 인정하는 Titan의 품질은 앞으로도 해인의 미래를 가능하게 가치 기준이 될 것이다.

글. 문영경, 사진. 이승혁





(주)헤인 'CONEX KOREA 2005' 참가기

새로운 도전, 새로운 희망을 향해

역대 최대 규모라는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지난 5월 25일 개막한 제5회 한국건설기계전. 그 열띤 현장 속에서 올해로 4회째, 규모로도 업계에서 4번째로 꼽힐 만큼 어느 때보다 열정을 보인 (주)헤인은 신 장비 호연과 체계적인 홍보로 고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다. (주)헤인의 과거와 현재를 가늠하고 미래의 희망을 확인한 2005 한국건설기계전을 따라가 보자.

글 임춘재, 사진 이승혁



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산의 한국국제 전시장(KINTEX)에서는 '2005 한국건설기계전 (CONEX KOREA 2005)'이 열렸다. 한국건설기계전은 국내 최대의 순수 전문 건설기계 전시회로 1996년 대전 무역전시관에서 시작되어 올해로 총 5회째를 맞는다. 건설기계 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수입 대체를 유도하며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등 건설기계 산업의 부흥을 위한 열린 창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전시장 규모만 5만㎡에, 참가 업체 수가 19개국 200여 개, 해외 바이어를 포함해 참가 및 관람객이 4만5천여 명에 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1996년 이래 올해로 4회째 전시회에 참여한 (주)헤인은 손규식 회장이 개막 테이프 커팅식에 참여하는 한편 옥외 부스에 캐터필라 305.5 굴삭기를 비롯, 325CL과 Ingersoll-Rand Titan 326 아스팔트피니셔 등 각종 장비 11대를 전시, 두산, 볼보, 현대 등에 이어 업계 4위의 규모를 선보이는 등 전시에 임하는 남다른 열정을 피력했다. 옥외에 마련된 헤인 37부스에는 대부분의 장비가 신장비로 전시되는 한편, 헤인의 서비스에 대한 총체적인 소개도 이어져 헤인의 전체인 위상을 홍보하는 뜻 깊은 자리도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시회를 통하여 최대의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비를 선정하여 전시하였다. 특히 올 상반기 (주)헤인의 주력 신 모델인 CAT 305.5 소형 굴삭기를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관람자들로 하여금 조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고객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이밖에 부스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헤인 로고와 캐터필라 로고가 새겨진 모자 및 시계, 열쇠고리 등 각종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주)헤인은 이번 한국건설기계전에서 얻은 고무적인 피드백을 통해 다시 한번 헤인의 입지와 고객의 지지 기반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전통적으로 헤인이 강세를 보여 왔던 시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과 그에 맞는 새로운 장비를 개발할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더욱 발 빠른 행보를 지속해나갈 전망이다.



SPOT INTERVIEW

이상진 (31세 · 동해시 춘곡동)



직업상 굴삭기를 조작하다 보니 장비에 늘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건설기계전은 처음인데, 자료 수집도 하고 추세도 파악하려고 참가해 봤죠. 정보도 많고, 장비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 기대 이상입니다. 특히 캐터필라 305.5 소형 굴삭기를 직접 운전해봤는데 아주 좋네요. 동작도 부드럽고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한 게 아주 만족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생각이요. 더 나은 장비와 그에 걸맞는 더 나은 A/S도 기대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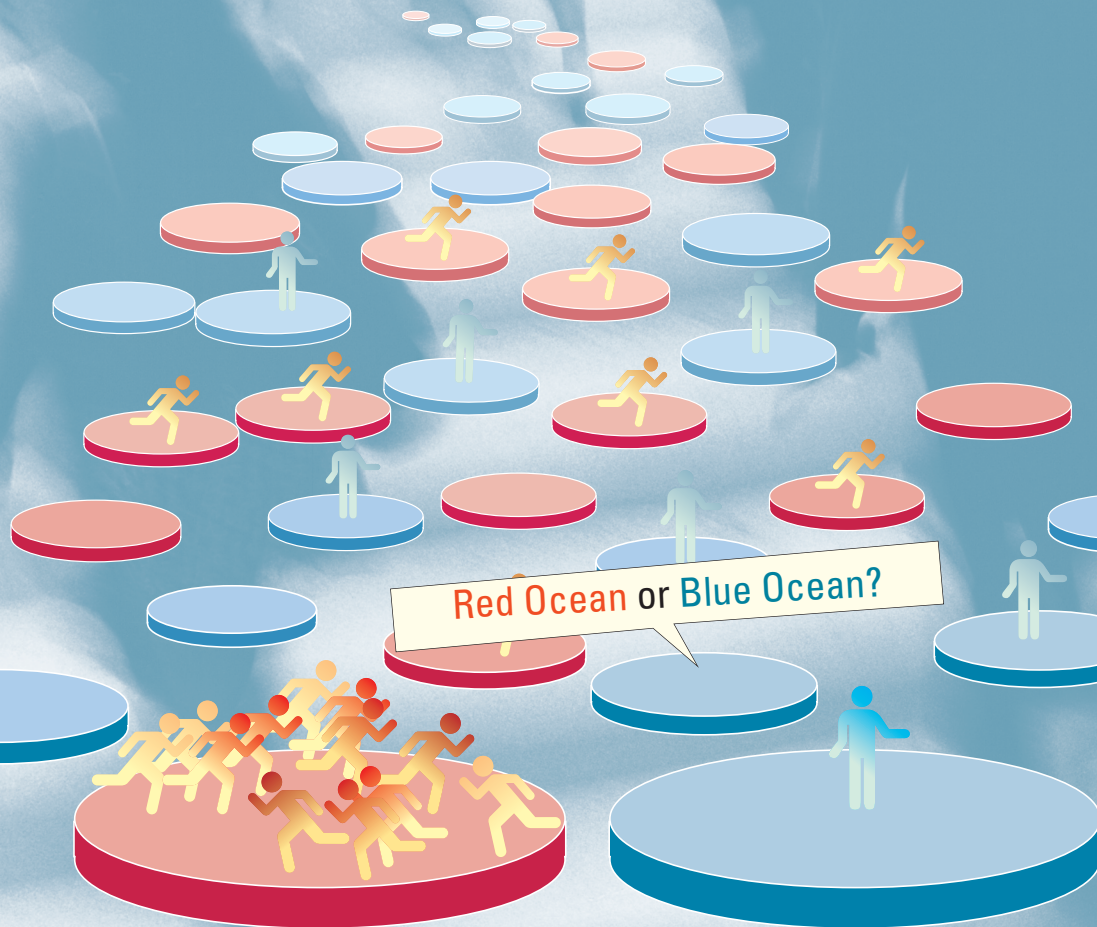
이재훈 (33세 · 대구시 달서구)



한국건설기계전은 처음 참가해 봅니다. 생각보다 규모도 크고, 정보도 많아 도움이 많이 되네요. 사실 헤인의 캐터필라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 터라 헤인 부스를 먼저 찾았습니다. 신 장비를 비롯해 이것저것 설명을 들어보니 기술이나 체계가 월등한 것 같아 놀랐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잘 해 주십시오. 헤인 파이팅!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지난 2002년 전국의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서는 등 풍부한 주택수가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나 투자자 모두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란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이야기다. 블루칩만 찾다 치열한 경쟁 속에 과다 출혈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 상품을 찾아내는 안목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블루오션'을 찾아라



'블루오션'을 찾아라

블루오션(Blue Ocean)이란 경쟁이 치열한 상품시장에 뛰어들어 '피'를 흘리며 수익을 창출하는 레드오션(Red Ocean)과 대비되는 시장 논리다. 즉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창출하고, 경쟁을 피해나가면서 수익을 챙기는 시장이 바로 블루오션이다.

그간 레드오션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인 시장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규모의 경제' 논리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는 동종업 종사자가 늘어나면 시장이 확대되고, 시장이 커질수록 그만큼 매출도 늘어난다는 고전주의 경제학 논리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대량공급, 대량생산과 같은 고전 경제방식 대신 포스트포디즘(Post-Fordism)이 자리 잡은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레드오션 전략은 무의미하다. 선도기업, 대기업일수록 신상품 개발과 새로운 시장 접근이 빠른 것도 바로 이들의 폭넓은 시장 분석과 정보력 때문이다.

부동산의 블루오션

공급량 과잉으로 인해 시장의 판도가 크게 뒤바뀔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같은 블루오션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이른바 '판교후광' 지역에서 시작한 주택시장 열기는 남부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번져 크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태. 하지만 이를 잘 들여다보면 결국 강남권과 분당 등 이른바 블루칩 단지만 오르고 있을 뿐 전국적인 집값 상승과는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3년간 '갯기만 하면 팔리던' 수도권 아파트도 이제 대량 미분양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의 블루오션 상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동산 시장에서의 블루오션은 첫째 상품 관점과 지역 관점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지난 2~3년간 부동산 활황기 당시 아파트가 레드오션 상품이라면 주상복합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블루오션 상품이라 볼 수 있다. 또 강남과 판교가 레드오션지역이었다면 독섬이나 마포 등은 블루오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공급되는 상품이 한정적이고 환금성이 떨어지는 보수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블루오션 상품이나, 블루오션으로 꼽을 만한 지역은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과거에 인기 있었거나 현재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상품 등의 틈새상품을 우선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을 통해 개발 당시 지역보다는 개발 수혜지역을 찾아내는 것이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와 개발의 첩경이다.

고급형 빌라, 전원주택 등의 틈새 상품

우선 서울 한강이나 산 주변에 들어서는 고급형 빌라를 들 수 있다. 보통 빌라는 공급이 쉽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파트만한 재산가치는 없다. 특히 최근 시장의 관심이 모두 아파트 시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빌라는 언론에서도 관심조차 못받는 '찬밥 신세'가 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강남구 청담동과 서초구 방배동 동광단지 등 이른바 '알짜부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고급형 빌라에 대한 수요가 풍부하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 대형 평형 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된 것도 고급형 빌라 공급업체로서는 오히려 호재인 셈이다. 더욱이 최근의 행정 중심 복합도시와 주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금껏 서울과 서울에 접한 수도권 대도시에만 형성된 생활권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따라서 이 경우 고급형 빌라는 더욱 규모가 큰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전원주택도 향후의 블루오션 상품으로 빼놓을 수 없는 물건이다. 수도권 주거지역의 해체와 확대에 따라 충청권과 서부 강원권까지 생활권이 확대되면 북한강, 남한강 수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전원주택 건설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산과 강이 적절히 조화돼 있으면서 시가지와도 가까운 곳을 찾아내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는 것도 블루오션 상품으로 꼽을 수 있다.

정책방향 따져 시장미래 예측한 투자

부동산 시장은 다분히 정부의 개발정책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만큼 투자자들도 시장 정책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 예측하고 이에 따른 개발과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최근 대부분의

수도권 수요자들의 시선이 모여 있는 판교 신도시는 바로 정부 정책이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을 가장 잘 설 명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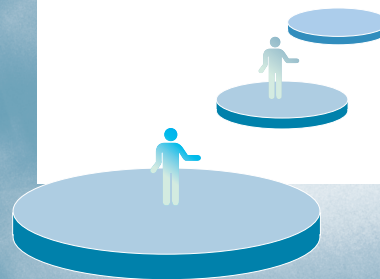
판교 신도시의 블루오션은 단연 판교 후광 아파트, 용인시 수지지역과 분당 신도시 등 판교신도시 인근 아파트 값은 단 몇 달 사이 1억 원씩이 뛰어올라 송파구나 서초구 수준까지 이른 상황이다.

그렇다면 판교 후광 지역을 잇는 차기 블루오션 지역은 어디가 될까? 최근 서울시와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 책임 공방전이 한창인 와중에도 반대급부로 떠오르는 곳이 바로 서울 뉴타운이다. 그간 청계천 복원 등 전시행정에 집중하던 서울시는 청계천 사업 완료와 함께 뉴타운으로 고개를 돌린 상태며, 건교부도 뉴타운 개발에 협조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상황은 뉴타운 지정 당시보다 훨씬 긍정적이다.

현재 이들 뉴타운 지역의 지분가격은 지난 2003년 지정 당시와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 예컨대 2003년 뉴타운 지정과 동시에 10평 이하 소형 평형 지분의 경우 매매가가 평당 1,700만 원까지 치솟은 아현뉴타운은 2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유사한 수준에 지분가격이 형성돼 있는 상태다. 물론 뉴타운은 사업방식의 복잡성과 도로 등 기반시설의 문제로 인해 투자가치가 강남 지역만큼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정부와 서울시의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된다면 강남이나 판교에 다음 가는 수준의 투자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시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새로운 상품, 틈새투자처 등 블루오션을 구상하는 투자자들이라면 염두에 뒀야 할 것이 있다. 아무리 블루오션이라도 언론에 소개돼 알려질 정도면 그때부터 레드오션에 불과하다는 것. 따라서 수요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빠른 정보 습득이며,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향후 시장 채편에 대한 꼼꼼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글. 이동훈 부동산뱅크 기자



한국을 위해 개발된

CAT 305.5 소형 굴삭기

CAT 305.5는 국내 5.5톤급 굴삭기 시장을 겨냥해 2003년부터 국내 시장조사와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본에 있는 캐터필라 디자인센터에서 2년여의 개발 끝에 마침내 출시한 한국형 소형 굴삭기이다. 최저의 운용비용, 높은 생산성, 탁월한 성능으로 어떠한 현장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하며 운전 및 정비편의성에서도 캐터필라만의 앞선 기술력을 자랑한다. 또한 캐터필라 대형 굴삭기의 설계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해 강한 내구성은 물론 국제 기준에 맞는 친환경 저(低) 배기 엔진을 장착하여 환경 보존까지 고려했다.

글. 전상윤 장비마케팅팀(andyjeon@haein.com)



조용한 고성능 친환경 엔진

캐터필라와 미쓰비시가 합작하여 개발한 고효율(동급 최고)의 4M40-EA 엔진은 적은 연료 소모량을 자랑하며 낮은 엔진 소음 및 진동은 운전자의 피로를 감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엔진 수명을 연장시킨다. 또한 미국 소음배기가스 기준인 TIER II와 유럽 소음배기가스 기준인 EU Stage II 기준을 완벽하게 통과한 친환경 엔진이다.

고효율 유압시스템

운전 편의성, 내구성 및 낮은 고장률을 목표로 설계된 유압시스템은 연료 소모와 운전 소음을 최소화하고 구성품의 수명 연장을 위하여 조이스틱과 주행레버가 중립 위치에 있을 때 유량 흐름을 최소화시키는 유량제어 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한 기본 사양인 보조 유압라인은 해머, 절단기 및 분쇄기를 포함한 다양한 작업장치의 작동을 가능하게 한다.

뛰어난 내구성

봄과 스틱은 고(高) 인장강도 강을 사용하여 최고의 굴삭 능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모든 핀은 봄 및 스틱과의 굽힘과 마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꺼운 크롬으로 도금되어 있으며, 험한 굴삭 작업에서도 스틱으로 전해지는 전단 및 측면 부하를 원활히 배분하기 위해 핀지름을 크게 설계하였다. 이러한 핀의 특징은 그리스 주입주기를 연장시켜 경제적인 유지보수를 가능하게 한다.

강력한 언더캐리지

장비의 최적 균형을 기본으로 설계된 언더캐리지는 X 프레임과 H 프레임을 결합한 디자인으로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나 잦은 마모에 따른 유지비용을 감소시켜 준다. 2단 변속(동급 최고 속도)이 가능한 주행모터와 강력한 트랙 구동은 여러 작업현장에 맞게 높은 견인력과 회전능력을 제공한다.

또한 넓은 용량의 블레이드는 자동으로 수평을 유지

시켜 주는 플로팅 기능이 있어 배토작업 및 평탄작업시 효율성을 제공한다.

인간 중심의 운전공간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부드러운 조이스틱 및 각종 레버는 봄, 스틱, 주행, 블레이드와 보조장치를 효율적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2단 주행모드는 운전실 바닥에 있는 스위치로 쉽게 변경할 수 있다. 특히, 운전 중에도 안전장치, 유압계통, 전기장치, 보조장치 등 장비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능형 통합 모니터를 장착하였다

- 동급 최고의 저소음 작업환경(78dB)
- 어떠한 기후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고용량 에어컨 및 히터
- 최고급 서스펜션 시트
- 청소하기 편리한 바닥 매트
- 고성능 카세트 라디오
- 눈부심을 최소화시키는 코팅 유리
- 가스스트럿 방식으로 쉽게 열리는 전방 유리
- 탈착 및 캡 내부에 보관 가능한 하단 유리

- 선명한 시야 확보를 위한 고감도 와이퍼
- 작업 편의성을 위해 스윙시 모든 각도에서 보이는 블레이드
- 더욱 넓은 시야성을 위한 선루프

편리한 유지관리

- 더욱 길어진 그리스 주입주기 : 500시간 (버킷 및 스윙조인트 제외)
- 필터류 수명연장 : 에어클리너 1,000시간, 연료필터 500시간
- 별도의 정비가 필요 없는 사이클론 방식의 프리크리너
- 효율적인 작동을 위한 연료필터 및 유수분리기
- 원터치 버튼으로 손쉽게 작동되는 연료주유장치
- 지면에서 보충할 수 있는 그리스 주입구

305.5의 기본 제원

정격출력	54.3 hp @2,100 rpm
운전중량	5,480 kg
토출량	2 x 54.6 L
토출압(작업/선회)	250 / 210 kg/cm ²
버킷용량	0.18m ³
연료탱크	135 L



SHP825WCAT 콤프레사 출시

2005년 5월 새롭게 출시된 중고압 콤프레사 SHP 825WCAT은 풍량 825cfm, 정격압력 17.6kg/cm²으로 기존 콤프레사와 차별화된 성능을 자랑한다.

SHP825WCAT은 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린 2005 한국건설기계전에 처음 전시되어 콤프레사 관련 고객들로부터 많은 호평과 더불어 구매 욕구를 자극하였다. 또한 새로운 SHP825WCAT에는 캐터필라사의 C9 엔진(전자제어식, 335마력)을 장착하여 우수한 성능과 더불어 엔진부하 속도에 따른 최적의 연료 분사가 이루어져 우수한 연비를 제공할 것이다.

- 문의 : (주)헤인 IR장비 영업팀 윤준호 대리
02) 3498-4628, 010-2336-9273



캐터필라 장비 무료 체험 이벤트 실시

(주)헤인 캐터필라 장비사업본부에서는 사용자가 현장에서 장비의 성능을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2005년 6월부터 국내 시판에 들어간 한국형 02급 굴삭기 305.5를 비롯하여 1.3루베급 굴삭기 325CL과 절단가위, 4루베급 휠로더 966GII 및 스킵로더 등 총 6대가 무료 체험 이벤트에서 가동되고 있다. 전국 어디라도 고객이 요청하는 곳에 직접 찾아가 체험의 기회를 드리는 이번 이벤트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문의 : 02-3498-4632(굴삭기)
02-3498-4634(휠로더)
02-3498-4635(소형굴삭기 및 스킵로더)

삼성 TESCO 물류장비 납품

(주)헤인의 산업장비영업팀은 금년 1월에 계약한 삼성 TESCO 합안 CDC용 Jungheinrich 장비 납품을 6월 23일 완료하였다. 납품 장비에는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ECE220(Low Level Order Picker)이 포함되어 양사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특히 ECE220 장비는 TESCO 합안 신선물류 센터에서 전국에 배송될 신선 식품의 보관 및 이송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헤인 산업장비영업팀은 최고의 장비에 맞는 최고의 사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5회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 수산기자재전시회 참가

(주)헤인은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해양수산부가 지원하고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하는 제5회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의 “수산기자재전시회”에 참가 캐터필라 엔진을 전시 홍보하였다. 이번 수산업경영인대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변항에서 개최되어 전국에서 1만여 명의 수산업 경영인들이 참가하여 수산기자재전시회를 적극 참관하는 등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주)헤인은 환경친화적인 첨단 기종인 캐터필라 C18엔진(1,000마력) 및 3412E엔진(720마력)을 전시하여 캐터필라 엔진의 우수성을 전국 수산업 경영인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6 Sigma 소식

2004년 하반기부터 진행되어 온 “적정재고 유지 및 재고비용 감소를 위한 프로젝트”와 “서비스 표준시간 구축 및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 및 Green Belt 졸업식이 2005년 4월 8일 헤인 본사 6 Sigma Hall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회장님 이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 되었으며, 프로젝트에 참여한 Green Belt에게 수료증이 수여되었다. 이날 수료증을 받은 Green Belt를 포함하여 헤인은 Green Belt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직원의 12%에 이르게 되었다.

- Green Belt : 프로젝트 주관자인 Black Belt를 도와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프로젝트 참가자.

동양물산기업과 산업용 디젤엔진 공급 계약 체결

(주)헤인과 동양물산기업은 지난 6월 20일 양사 간 산업용 디젤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Caterpillar 및 Perkins 산업용 디젤엔진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주)헤인은 이번 계약을 통하여 동양물산이 생산하는 농용 트랙터 40 마력에서 90 마력급 장비용 주 엔진을 향후 3년간 최소 5,000여 대를 공급하게 되었다. 또한 향후 동양물산기업이 생산하는 농용 트랙터 생산에 필요로 하는 각종 기술지원도 수행할 예정이다.

독자 나눔터

우연히 거래처에 들렀다 눈에 확 띄는 매력적인 헤인 사보에 푹 빠져 전화로 바로 신청해 받아보았습니다.
'(주)헤인'이라는 회사에 대해 잘 몰랐으나 사랑과 정성이 넘치는 사보를 보고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의 밝게 웃는 모습, 가족같이 지내는 모습에 더욱 더 믿음이 가네요.
독자코너를 늘려 독자들과 좀 더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고, 공기관 등에 많이 비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해 주신다면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완벽한 '헤인'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주소 미기입으로 상품 발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찾습니다!

이제 봄인가 봅니다. 헤인의 사보를 정겹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사보에는 '건강'을 지켜야 하는 이유나 정보 등으로 '웰빙' 붐을 반영하는 소식도 있었으면 합니다. 직장인들은 바쁜 이유로 자기 몸을 덜 챙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경남 순천시 조례동 동아아파트 104-301 정경옥 님

안녕하세요. 사보 잘 받아보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캐터필라 장비들에 대해 장비 각각의 고장 현상과 수리 방법, 고장 원인 파악 및 고장 현상 테스트 방법 등에 대해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과 설명 등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충북 단양군 매향읍 매향리 270 성신양회(주) 중기과 김종민 님

다른 해보다 유난히 길고 힘들었던 겨울을 보낸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과 함께 건설 경기가 되살아나 헤인 건설장비가 현장에서 힘차게 가동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헤인 가족 파이팅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115-11 2층 (주)진보중기 최인환 님

한국 국제전시장에서 열리는 '2005년 한국건설기계전'에 참가해 헤인에서 판매 중인 건설 기계들의 우수성을 맘껏 창출하시어 높은 찬사를 받길 기원합니다.

부산 사하구 대대 1동 1550-6 물운덕 아파트 103동 401호 홍원숙 님

엽서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첨되신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문의 : 이승일 과장(silee@haein.com)02-3498-4524

자녀 출생을 축하합니다

정비기술팀	2005. 03. 15	주임 박상훈
장비마케팅팀	2005. 04. 30	대리 전상운
중고장비영업팀	2005. 06. 04	사원 전광모

결혼을 축하합니다.

정비기술팀	2005. 04. 17	사원 김용남
Field서비스팀	2005. 05. 01	사원 김종신
금융무역팀	2005. 05. 28	대리 김덕연
금융무역팀	2005. 05. 28	대리 정홍식

지난호 그림맞히기 퀴즈 정답

4	6	8
7	2	1
5	9	3

우리 생활 푸르게~푸르게!

발견 그린테라피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가치관이 변하면서 '즐겁고 건강하게' 살자는 것이 모토로 떠올랐다. 우리 생활 곳곳에서 '녹색' 열풍이 불어닥치는 이유 또한 다르지 않은데, 일찍이 조화와 균형을 상징해온 바, 녹색이 아이들 키워드로 주목받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웰빙, 건강 열풍에 맞물려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것이 바로 자연 치유법들이다. 일명 '테라피(Therapy)' 시리즈. 의학적 치료나 화학요법 없이 자연의 본래 성질을 통해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으로, 향에서부터 독서, 음악, 미술, 컬러 등 분야도 다양하다. 특히 '그린테라피'는 색으로는 물론 인테리어나 먹거리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며 우리 생활 곳곳에 깊숙이 등지를 틀고 있다.

色다르다, 녹색의 힘

일찍부터 녹색은 조화와 균형의 색으로 알려져 왔다. 시각적으로 전해지는 느낌에 걸맞게 심리적으로도 거의 자극을 주지 않아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은 물론, 지친 몸과 마음에 균형을 잡아주어 안정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스트레스나 긴장, 불면증 등 간단한 질환에 대한 효험은 이미 알려진 녹색의 힘이다.

이처럼 녹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치유 효과를 '그린테라피'라고 한다. 고대 이집트와 중국인들이 색상을 질병 치료에 이용했다고 하니, 그린테라피의 기원도 그쯤으로 거슬러 올라갈 듯 싶다. 인간과 함께 나고, 자라고, 소멸하는 자연을 일부러 구해야 하는 그린테라피는 현대인들의 삶을 반추하는 산물이기도 하다.

두루두루 이름게

대표적인 그린테라피의 예라면 오래 전부터 자연가습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집안의 녹색 식물들. 최근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을 차단시켜 소위 새집증후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

다가 집안의 습도를 조절하고, 눈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준다. 잎이 많아 공기정화 역할이 뛰어난 '벤자민 고무나무', 벽 속 화학물을 흡수하는 '인도 고무나무', 각종 전자파를 차단시켜 주는 '산세베리아', 왕성한 산소를 만들어 집안을 환기시켜주는 '호접란' 등이 대표선수다.

먹거리는 어떤가. 자연 본래의 컬러, 순수한 기운이 고스란히 스며들었으니 기본이라면 기본이요 최고라면 최고가 된다. 섬유소와 비타민이 많은 귀이는 황산화물질 또한 많아 영양가가 풍부한 과일로 꼽힌다. 또 아보카도는 풍부한 지방에 비해 콜레스테롤이 없어 미용과 다이어트에 좋으며, 혈압을 조절해 주고 고혈압, 동맥경화증에도 효과가 있다. 발암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알려진 브로콜리는 위암과 위궤양에 탁월하고, 철분, 칼슘이 다른 채소보다 많은 시금치는 빈혈, 신장병 등에 권장하는 으뜸 식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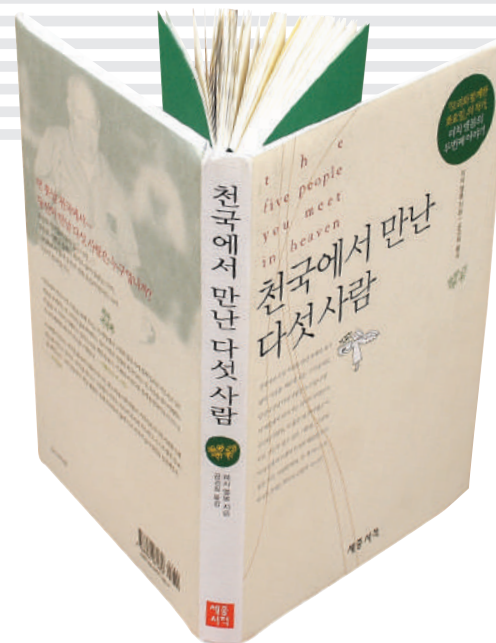
이 외에 인공적인 방법으로 그린 테라피의 효과를 누릴 묘안도 있다. 이른바 그린 인테리어. 시선이 잘 가는 곳에 놓인 녹색 꽃병, 아늑하게 감싸는 녹색 쿠션과 블라인드, 녹색 주조의 그림 등은 음식과 식물에서 취하는 효과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 소중함을 모를 뿐, 돌아보면 자연과 함께하는 매 순간 우리는 치유의 기쁨을 누렸다. 너른 초원에서, 숲에서 이는 푸른 바람에서, 또 집안 한 귀퉁이를 장식하고 있는 작은 식물에서 우리가 누렸던 솔한 기쁨과 위안과 보람을 생각해보라. 세기의 중국 철학자 노자의 말을 새삼 되새길 때다. 우리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라'.

글. 임정미 자유기고가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



팔십 평생을 놀이공원의 정비공으로 살아온 주인공이 어느 날 사고로 죽음을 당한다. 젊을 때는 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었고, 50대에는 평생 사랑했던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온 독신노인. 태어나서 한 번도 놀이공원을 떠나지 못하고 살아온 주인공 에디는 어릴 때 가졌던 작은 꿈조차 이루지 못한 자신의 삶을 늘 무가치하게 여기며 살아왔다. 천국에서 에디는 다섯 사람을 차례로 만난다. 주인공 에디는 다섯 사람을 만난 뒤에야 자기 삶의 의미를 깨닫고 타인과 자신의 삶을 용서하고 이해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천국'이란 이렇게 부정하고만 싶었던 자신의 삶과 화해하는 곳, 그리하여 영원한 평안을 얻는 곳이었다.

미치 앨봄著, 세종서적주식회사刊

2 0 0 5

S U M M E R

우 편 엽 서

보 내 는 사 람

□ □ □ - □ □ □



(주)헤인 사보편집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92-6 헤인빌딩

애 독 자 카 드

● 오른쪽 그림을 왼쪽 그림에 맞게 재배열해 보세요. 아래에 있는 빈 칸에 순서를 올바르게 배열하여 적어 주세요.

1		



● 독자나눔터의 신고 싶은 사연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